

‘무전공 입학’ 중도 탈락률, 대학 평균 2~5배

종로학원, 지난해 대학별 공시 분석 부적응·학과 배정 문제 원인일 것 최상위권 학생들 의대 진학 추정

대학들이 교육부 지침에 맞춰 무전공(자유전공) 선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요 대학의 무전공 학과를 다니다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전공 선발은 전공 구분 없이 대학에 들어간 뒤 2학년 올라갈 때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학생 입장에서는 전공 선택권을 보장 받는 효과가 있고, 대학은 시대나 기술 변화에 맞게 새로운 전공을 도입하거나 융합 학문 전공을 개설할 수 있다는 계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좁은 취업문을 상대적으로 뚫기 용이한 전공에 학생들이 과도하게 쏠리면 인문학과 기초과학의 위기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종로학원이 2023학년도 대학별 공시를 분석한 결과 연세대 인문자연통합 무전공 학과인 글로벌 인재학부에서 2022년 중도탈락한 학생 비율은 총 6.2%로 집계됐다.

이는 연세대 전체 학과의 평균 중도 탈락률(3.0%)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중도탈락은 자퇴, 미등록, 미복학, 유급 등으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고려대의 인문자연통합 무전공 학과인 자유전공 학부 또한 2022년 중도탈락률이 5.8%로, 같은 해 학교 전체 평균 중도 탈락률(3.4%)의 두 배에 가까웠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같은 해 중도탈락률이 1.8%로 학교 전체평균(1.9%)과 비슷했다.

무전공 학과는 신입생 때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2학년 때 진로를 정하는 학과를 뜻한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고 융합형 인재를 길러낸다는 목적이 각 대학에서 무전공 학과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학과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다른 학교 진학 등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경향이 다른 과보다 더 높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인문자연통합 무전공이 아닌, 자연계-인문계 각각으로 입학해놓고 2학년 때 각 계열의 전공을 선택하는 ‘계열 내 무전공 학과’의 경우도 중도 탈락률이 다른 과 평균보다 높기는 마찬가지였다.

서울대 인문계열의 무전공 학과는 2022년 중도 탈락률은 4.9%로 전체 평균보다 2.6배 높았다.

서울대의 자연계열 무전공 학과인 첨단융합학부

는 올해 처음 선발해 중도 탈락률이 집계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2022년) 연세대 융합과학공학부(ISE) 중도 탈락률은 15.6%, 언더우드학부(인문사회)는 7.8%, 융합인문사회학과부(HASS)는 4.8% 등으로 전체 평균(3.0%)보다 많게는 5배 이상 높았다.

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 무전공 학과의 중도 탈락률은 14.2%로 전체 평균(3.2%)보다 4.4배 높았다. 공학계열 무전공 학과의 중도탈락률은 12.4%, 인문과학계열은 6.3%, 사회과학계열은 6.1%로 역시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서강대도 인문학부 무전공 학과는 14.0%, 사회과학부는 10.3% 등으로 이 역시 평균(3.7%)의 3~4배에 달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무전공 학과 입학 후 원하는 학과로 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것 같다”며 “최상위권 학생들은 의대 진학으로 진로를 틀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대입에서 5~25% 이상의 학생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대학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송원대 휴먼산업대학원 권성욱 원장이 '2024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인증서를 받고 있다. (송원대 제공)

송원대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철도 특성화 부문 최고 브랜드 3년 연속 선정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는 최근 산업정책 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24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서 3년 연속 대학(철도 특성화) 부문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송원대는 1996년 국내 사립대 최초로 철도 경영학과를 설립·운영한 이래 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광주도시철도공사 등 철도운영 공기업과 포스코 등 대기업에 졸업생 400여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는 코레일 공채에 15명, 서울메트로9호선, 서울교통공사, 신분당선, 현대제철, 대아티어, SK네슬리스, 다원시스 등 철도관련 공기업에 28명이 취업함으로써 명실상부 철도 특성화 대학의 입지를 재확인했다.

송원대는 그동안 ‘지역사회와 함께’라는 대

학비전과 ‘철도 특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을 위한 교육혁신과 인프라 구축,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연구기술개발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송원대는 전국 사립대 최초로 차량면허와 관제면허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대학으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2016년 철도차량운전면허와 2022년 관제시스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인가받은 ‘철도아카데미’도 운영중이다.

송원대 최수태 총장은 “송원대가 철도 특성화로 공인받은 만큼 인성과 자조, 전공능력을 고루 갖춘 철도 전문인력 양성 산실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농산어촌유학’ 전국서 291명 참여

2024학년도 1학기 모집 결과...3년 이상 장기유학생 학기마다 증가

전남교육청은 2024학년도 1학기 농산어촌유학생을 모집한 결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광주, 부산, 경남 등 전국에서 총 291명(191가구)의 학생이 참여했다고 5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들 학생을 도내 15개 시·군 46개 작은학교에 배정했다. 유학생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254명(87.3%), 중학생 37명(12.7%)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138명(47.4%), 인천·경기 69명(23.7%) 등 수도권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또 광주 31명(10.7%), 부산·울산·경남 22명(7.6%), 대구·경북 17명(5.8%), 대전·충남·충북 14명(4.8%) 등 전국 각지에서 오는 유학생도 많았다. 특히 유학 온 지역에 온 가족이 이주해 3년 이상 생활하는 장기유학생이 97명(33.3%)으로 학기마다 늘고 있어 주민직선 4기 들어 중점 추진해온 ‘정주형 장기유학’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 교육청은 농산어촌유학 참여 학부모가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주거환경과 일자리 문제인 만큼 전남도 및 시·군의 귀농귀촌 사업 등과 연계해 주거환경 개선, 체재비 지원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 또 유학마을 연계 프로그램, 유학캠프, 전남-서울 교류학교 운영 등 지역 인프라를 연계한 특색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농산어촌유학 사업이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의 작은 학교에 희망을 안겨주고,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호 교류에 활기를 불어넣는 정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대, 몽골 울란바토르시 종합학교 4곳과 학술연구·행정연구 업무협약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최근 몽골 울란바토르시 종합학교 4곳과 교육, 학술연구, 행정교류 촉진을 위한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대 행정관 6층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몽골 종합학교 교장단과 광주대학교 김갑용 부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들이 참석, 광주대 유학생 생활·학업 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김갑용 부총장은 “몽골의 우수 인재들이 광주대학교의 훌륭한 교육 인프라를 통해 세계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센터제 사그다그 알탄치메 교장은 “요즘 몽골 학생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고,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데 광주대학교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협약식 이후 몽골 관계자들은 광주대 스마트강의실, PC실, 호심기념도서관 호심스터디라운지 등 학교 주요시설을 둘러봤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동신대, 베트남서 에너지프로슈머 리빙랩 프로젝트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가 베트남에서 에너지프로슈머 리빙랩 프로젝트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동신대학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단(RIS사업단)과 혁신융합캠퍼스사업단은 최근 베트남에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11월 동신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VKBIA(베트남기업인투자협회)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앞서 동신대와 VKBIA는 다낭 등 베트남 주요 관광지에 에너지프로슈머 리빙랩 구축을 추진키로 협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신대는 RIS사업단과 혁신융합캠퍼스사업단 참여 교수, 협업 기업, 사업 참여 재학생 등 40여 명으로 베트남 에

너지프로슈머 리빙랩 프로젝트를 꾸려 현지 답사를 위한 해외연수를 진행했다.

이들은 베트남 다낭과 호치민의 대학과 기업을 탐방하며 에너지프로슈머 리빙랩 기술·연구개발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했다. 앞으로는 에너지 자립마을로 조성 중인 나주 대실마을을 모델로, 베트남에서 동신대 재학생과 지역 기업이 개발한 재생에너지 기술과 시설, 설비를 실증하고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동신대 이동휘 혁신융합캠퍼스사업단장(컴퓨터학과 교수)은 “동신대 학생들과 지역 산업체가 공동 개발한 리빙랩 제품 실증을 통해 베트남에 나주 대실마을과 같은 에너지프로슈머 자립마을을 구축할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